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 인사말 -

정책에 관해 굳이 미리 무슨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말씀드리려 한 것은 인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해외 순방 때 함께 노력한 경제단체 대표자 여러분, 실제 기업을 이끌고 계신 총수 여러분께서 바쁜 일이 한 두 가지겠습니까만, 직접 참석해 정부 정책에 분위기 잘 조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기 대표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다. 좋은 대화 이뤄져서 지금까지도 노력했겠지만 좋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쟁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잘 공정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여한 것이 있겠지만 지금 정책 현실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시장에서 기업 간에 서로 여러 가지 협력이 잘 이뤄져야 비로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나가보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세계 수준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참 자랑스럽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대기업

있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 믿음을 갖고 대통령은 큰소리도 하고 돌아오면 생색을 내고, 좋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 욕심에는 대기업 제조업만 세계 일류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경쟁의 한마당에서 당당히 앞서가면 좋겠고 그래서 경제가 튼튼하면 좋겠습니다. 대기업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가는 대책 있어야 하는데 역시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정부가 정책적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이 회의가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로서 대화의장에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정부가 최대한 협력과 지원을 해서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토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다 노력하지만 서로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한발 물러선 기업 총수, 기업 대표를 모셨는데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사정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초청하다 보니, 협력업체와 관계없는 기업을 모셔봤자 별 상관없는 것 같고 협력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와서 애로사항을 잘못 얘기하면 껄껄웃음에 걸릴 것도 같고 해서 곤란했습니다. 협력관계 중기대표들 많이 오시게 됐는데 경영자들은 잘 알지만, 최고 책임자가 혹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 짝힐 요량으로 솔직히 얘기해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정부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쌍방 얘기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효과 있는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바쁜 시간에 자리에 참석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